voiceye.com VOICEYE

민주주의 척도, 표현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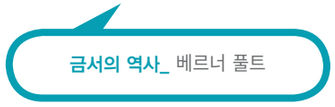
글 **장동석** 출판평론가, 『기획회의』 편집주간
9744944@hanmail.net

민주주의가 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해 민주시민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국가는 정치사회적 질서를 세워 나간다. 하지만 모든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 이래 생겨난 모든 사회는 저마다의 '금기'를 가지고 있었고, 책이 탄생한 이후에는 어김없이 '금서'를 양산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 대로 발전한 오늘날도 금서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언론 자유의 경전 『아레오파기티카』(존 밀턴, 소나무)는 검열의 해악을 조목조목 비판한 책이다. 존 밀턴은 공화주의를 혁명의 깃발로 내건 잉글랜드 의회파의 일원이었지만, 정권을 잡은 의회파가 검열제도를 부활시키자 "반혁명에 맞서 혁명을 옹호한다"면서 이 책을 출간했다. 검열을 받지 않고 『아레오파기티카』를 출간,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금서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금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책을 내놓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아레오파기티카_ 초판본 표지

밀턴은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복종, 강제에 의한 일치는 무가치하다고 역설한다. 『아레오파기티카』를 해설한 우석대 박상익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밀턴의 사상을 요약한다. "자유야말로 모든 위대한 지혜를 길러주는 소중한 가치이며, 한 개인과 한 민족의 위대성 또는 자유가 전제될 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밀턴의 사상이 갖는 근본 전제이다." 종종 대의를 위해 어떤 가치들은 무시되어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의는 하부 구조를 이루는, 즉 무수한 다양성이 전제되어야만 이루어진다. 『아레오파기티카』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궁극에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는 인류의 고전이 아닐 수 없다. 박상익 교수가 번역한 『아레오파기티카』(소나무 1999)는 현재 절판되었지만 임상원 교수의 번역본 『아레오파지티카』(나남 1998)로 읽어 볼 수 있다.


금서의 역사_ 베르너 풀트

『금서의 역사』(베르너 풀트, 시공사) 는 '왜, 무엇 때문에 금지의 역사는 지속되는가? 금지하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책의 발명과 함께 해온 금서의 끈질긴 역사를 분석한 책이다. 책을 금지하는 것은 '생각을 금지'하는 것이다. 유럽은 물론 미국과 중국, 아랍권까지 다루며 생각을 금지한 권력자들의 행태와 그에 투쟁했던 '선지자'들의 삶을 복원한다. 권력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지배하면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미래는 열린 공간이기에, 금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되고 새로운 사상으로 이어졌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등의 작품이 왜 금서가 되었는지, 오늘날 어떻게 고전이 되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준다.

검열에 관한 검은 책_ 에마뉘엘 피에라

『검열에 관한 검은 책』(에마뉘엘 피에라, 알마)은 프랑스와 벨기에 등지에서 검열과 관련해 직간접으로 활동하는 철학자와 작가, 판사, 변호사 등이 함께 쓴 책이다. 현대사회의 검열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대사회는 금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검열 아닌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 『검열에 관한 검은 책』은 인터넷과 미디어에 관한 검열은 물론 책과 영화, 연극 등 예술 활동 전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검열에 대해 소개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은 현저하게 줄고 있지만 경제 권력에 의한 검열 아닌 검열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뿐 아니라 진리의 발견을 촉진한다. 나아가 민주적 통합 기능을 발휘해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사회의 균형을 찾도록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민누리